



전통적 가치 · 현대적 감각의 조화



김중현 원장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5년도 공연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국악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계획은 △창극 및 민속음악의 예술적 완성도 제고 및 작품 보급 강화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민속악 연구 및 전시 콘텐츠 강화 △공연 서비스 품질 혁신 및 관객 경험 증대 등의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창극 및 민속음악

창극 및 민속음악의 예술성을 심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창극과 어린이극을 신규 제작하며, 기존 공연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재공연을 추진한다.

2025년 대표 창극으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억척어멈'을 한국적 정서로 각색한 '억척어멈'을 제작한다. 한국 여성의 강인함과 애환을 국악과 연기적 요소로 표현한 작품으로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공연은 6월과 9월, 남원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 ACC에서 진행된다.

어린이 대상 신작 창극 '별이와 무지개다리'는 반려견을 소재로 삶과 죽음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국악과 연극적 요소를 통해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으로, 3월과 5월에 공연될 예정이다.

2024년에 초연된 무장에 창극 '지리지'는 2025년 한층 완성도를 높여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경북 경주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다시 무대에 오르는데, 이 작품은 장애인 포함해 내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한글·영문 지막 해설과 한국수어, 국제수어를 더욱 강화해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국악의 대중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향유층을 확대하기 위해 다채로운 상설 및 기획 공연을 운영하며, 해외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기획공연 '광한루음악회'와 주말 관객을 위한 '보요기획공연'을 지속 운영하며, 명절 및 송년을 기념하는 절기 공연도 확대 편성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악동행·돌라닐라'를 신규 기획하며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전통예술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월에는 몽골 초



춘향마루



수궁마루



예음헌

창극 · 민속음악 예술성 심화
대중적 접근성 강화 등 위한
다채로운 상설 · 기획 공연 운영
민속악 연구 · 전시 콘텐츠 강화
공연 서비스 품질 혁신도

청공연을 열고,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일본 공연을 개최하여 아시아 전통예술 간 협력 기반을 다진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국악 교육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자유학기제 국악 교육 '국악세상', 방학 창극 체험 '틴틴창극 교실', 유아 대상 체험공연 '덕덕콩 국악놀이터' 등을 운영하며, 문화소의 지역 학교 초청 '즐거움 국악산책' 사업을 통해 전통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일반인 대상 단계별 국악 실기 강좌 '청출어람'을 운영하며, 아톰형 힐링 국악 프로그램 '국악명상'을 상·하반기로 확대해 국악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콘텐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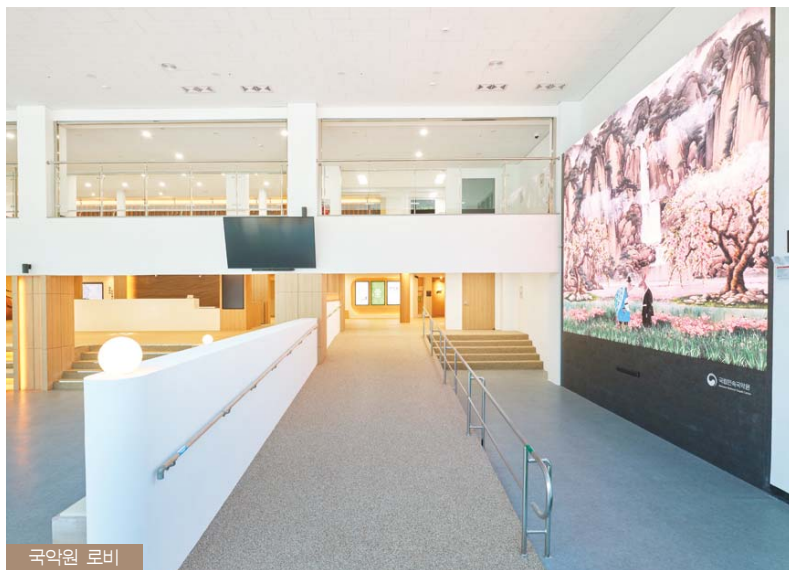
민속악 연구 및 전시 콘텐츠를 강화해 국악의 학술적 기반을 확립 및 공연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관객 경험을 개선해 국악 공연의 대중성을 확대한다.

전북 지역 전통예술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해 '민속음악학술자료집' 제7집을 발간하며, 시조명인 정경태의 연구 저서 '국악보'를 분석해 학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서비스 품질 혁신

한국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전시 코너 '한국악기'를 개편하고, '홍부전'을 소재로 한 국악 체험공간 '홍부마루'의 체험 요소를 확충해 방문객들이 보다 생동감 있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공연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연 평가위원회 및 일반인 공연 모니터링단



국악원 로비



대금 강좌



해금 강좌

을 운영해 작품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한다.

김중현 원장은 "2025년 국립민속국악원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과 융합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

를 선도하고, 국악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악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